

경기국제평화센터 '유엔사 관할권 문제' 공론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21.01.15 03:08 수정 : 2021.01.15 03:12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활용과 유엔사 관할권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보는 '제1회 국제 평화토론회'가 15일 오후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다.

경기국제평화센터 출범을 기념해 열릴 이번 토론회는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시우 작가가 '유엔사 지위에 관한 현황과 쟁점'을,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DMZ의 평화적 활용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한 뒤 이어 토론을 벌인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해영 한신대 교수, 김원식 민중의소리 국제관계 전문기자,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석 미주한인 유권자연대 대표, 천시문 코리아폴리시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영운 김포분단체험학교 대표, 박상진 부산외대 교수, 치사카 준 일본 평화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참석자는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장애와 과제, 유엔사 현황 및 쟁점, 평화부지사 집무실 등 유엔사 통행신청 불허 사례, 지방정부의 향후 역할 및 과제 등을 두루 논의한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념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경제 중심 지자체로서 경기도 역할을 강조하고, 평화-번영의 길을 향한 의지를 피력할 전망이다.

노주희 경기국제평화센터장은 “경기도가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도라산 전망대에 설치하려 했으나 유엔사의 권한남용으로 장벽에 부딪혔다”며 “평화정책에 대한 지방 정부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이번 토론회로 발전적인 제안이 많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15일 오후 3시부터 소셜방송 라이브 경기(live.gg.go.kr)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국제평화센터는 경기도의 국제평화정책을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 기반 확산 및 경기도 차원의 동북아 평화협력 다자 틀 구축을 위한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로 작년 10월 출범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